

온라인 및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통번역 교수자들의 인식 조사 연구

이지은
(이화여대)

1. 서론

지난 20여 년 동안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의 발전은 통번역 실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번역 업무 준비에서부터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와 통번역 서비스 전달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가져왔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통번역 실무와 통번역 연구 및 교육에도 영향을 끼쳤다(Munday 2012; O'Hagan 2012). 비단 통번역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교육 전반에 걸쳐 ICT 기술의 발전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이 도입된 지 오래이며 일방향 온라인 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블렌디드 러닝을 포함한 다양한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박성익 외 2007; 이현주 2012; Jiménez-Crespo 2015: 35; 이지은 외 2015: 119-123 참조).¹⁾ 분야를 막론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교수법만으로는

1) 본고에서는 온라인 교육과 이러닝을 구분하지 않고 용어를 혼용한다.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 그리고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기기 등 ICT 기술의 발전을 활용한 교육방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가운데 통번역 교육도 교육방식의 개선과 보다 효과적인 교수법 모색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원격 통역에 대비한 ICT 기술을 활용한 통역 교육 또는 온·오프라인 혼합형 블렌디드 러닝 통역 교수법이라든지(Moser-Mercer 2005; Braun 2007; Tymczynska 2009), 코퍼스 활용 번역 또는 기계번역 후처리에 관한 연구(Kenny & Doherty 2014 등)는 변화하는 실무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교육내용과 방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ICT 기술 활용은 블렌디드 러닝과 스마트 러닝 구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 수업활동뿐 아니라 수업전후 학습이나 과제 등을 온라인 방식으로 병행함으로써 제한된 수업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대의 교육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Secară et al. 2009; Sandrelli & Jerez 2007; 이지은 외 2015; 이지은 허지운 2015 등).

그렇지만 새로운 교수법이나 프로그램의 장점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교육현장에 적용되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간단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복합적인 과정이다(Rogers 2003; Hall & Hord 2006; 신중호 2014: 110). 무엇보다 학습의 주도권이 학습자 중심으로 이동하는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는 학습 목표 설정과 달성 방법,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 학습동기, 평가 방법과 목적, 학습자 상호작용의 변화를 수반하며, 학습자와 교수자의 역할 변화를 요구한다(Pederson & Liu 2003; 신중호 2014: 111).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변화된 환경에 필요한 능동적인 역할을 수용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이지은 허지운 2015: 9). 특히 교수는 학습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학습자의 권한을 존중하는 등 복합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강인애 주현채 2009: 6; 신중호 2014: 112).

대학교육에서는 교수의 수업 운영 방법과 내용에 대한 선택이 자유롭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교수자 개인의 신념과 태도가 새로운 교수법 채택과 실천에 큰 변수이다(신중호 2014: 110). 하지만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자들은 초중등 교사와 달리 교수방법이나 교수능력을 교육 받고 강단에 서기보다는 연구업적을 기반으로(손충기 2003), 특히 통번역 교육의 경우에는 실무경력을 기반으로

강의를 맡게 되는 편이라 체계적인 교수능력 개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교원들에게 교수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협력 가능한 교수 환경을 조성하도록 대학과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유정아 2009: 345).

교수자들도 대체적으로 교수개발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동감하고 이를 통한 수업 개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김태완 외 2006). 하지만 교수자의 신념과 관심에 따라 교육방법의 변화에 대한 교수자 개인의 수용도와 행태는 다르게 나타난다(송경오 허은정 2011; 신중호 2014: 110 재인용). 기존의 전통적인 교수방식에 익숙한 교수자는 역할 변화 내지 확대가 수반되는 학습자 중심 교육법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권성연 외 2011; 신중호 2014: 112). 학습자 중심 교수법에 대한 대학 교수자의 관심도를 전공분야, 교육경력, 직급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평가분석한 신중호 (2014)에 의하면 교수자들의 관심도가 낮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대학 교원들은 학습자 중심 교수법에 대해 관심이 낮고 실천 단계적으로는 초기단계에 가까웠다. 따라서 교수법 개발 및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업설계와 운영을 위한 컨설팅, 그리고 학습자 중심 교수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가장 필요하며, 교수자들이 새로운 교수법에 대해 이해하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신중호 2014: 126).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발맞추어 통번역 교수자들과 연구자들도 새로운 교수법 또는 교수개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크다는 관점에서 본고는 ICT 기술을 활용한 교육 및 학습방식의 변화로 간주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 온·오프라인 혼합형 교수법인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통번역 교수자들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새로운 교수법 연구와 교육방식 변화를 통해 통번역 교육의 발전, 나아가 우수한 전문인력 배출이라는 교육기관의 본질적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수자 입장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기 위해 우선 현재 교육현장에 있는 교수자들의 ICT 기술 활용도와 온라인 교육 및 관련 교수법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통번역 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간단히 살펴본 후 본 연구에 대해 차례로 논하겠다.

2. 관련 연구 동향

온라인 교육에 관한 통번역학 연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여 2002년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 면대면 교육 대비 온라인 교육의 차이를 조명한 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Jiménez-Crespo 2015: 35). 세계적인 통번역 교육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대표적인 통번역 교육 전문 국제학술지인 『*The Interpreter Translator Trainer*』를 살펴보았다. 2007년 발행된 제1권부터 2015년까지 출판된 제9권까지 게재된 연구논문 총 125편 가운데 33편이 이러닝 방식을 도입한 사례이거나 ICT 기술을 활용한 교육 관련 연구논문이다.²⁾ 최근 통번역 교육 연구 동향에서 온라인 교육 및 ICT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가늠할 수 있다.

검색된 논문 가운데 다수가 번역 및 번역 교육 관련 연구이며 통역 교육 연구는 10편에 불과하다. 이는 외부적 환경 및 기술 발전과 변화에 부응한 번역 교육방식과 교수법의 기술변화 수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역 교육의 변화 속도가 느린 것을 시사한다(Sandrelli & Jerez 2007: 269-270; Jiménez-Crespo 2015: 34). 컴퓨터 보조(CAT) 번역 또는 온라인 번역과 관련된 연구는 기계번역에서부터 온라인 코퍼스를 활용한 번역 교육에 관한 연구 위주로 대부분 협력학습과 자기학습의 중요성과 ICT 기술을 활용한 번역 교육의 효과 및 필요성을 다룬다(Kenny 2008; Kenny & Doherty 2014; Talaván & Rodríguez-Arancón 2014; Secară et al 2009; Rodríguez-Inés 2010 등). 통역 교육의 경우에는 교육 및 학습을 지지하기 위한 온라인 학습활동을 언급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컴퓨터 보조 통역 교육, 블렌디드 러닝 또는 온라인 교육을 다룬 논문은 이 가운데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Şahin 2013; Sandrelli & Jerez 2007, Braun & Slater 2014 등).

그 외 국제학술지를 통해 소개된 연구논문들도 상호연결되고 협력적인 작업방식이 자리를 잡아가는 번역 실무환경을 반영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동기 및

2) 'online'과 'computer'를 검색어로 넣었을 때 각기 74편과 78편의 논문이 추출된다. 이 중에서 중복된 논문과 서평, 논문초록, 서론, 학회보고 등 연구논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제외한 후 초록과 연구 내용을 검토하여 온라인 학습이나 ICT 기술 활용과 무관한 논문은 제외한 결과이다.

비동기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통한 번역 프로젝트 수행 학습 경험과 학습자들의 다양한 역할 수행 사례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전통적인 교수법과 비교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나 학습 성취면에서 온라인 교육 또는 혼합형 교육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공통적으로 제시한다(Jiménez-Crespo 2015: 38). 물론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학습자가 참여한 설문조사이거나 교수자의 에스노그라피 등 사례연구라는 한계점이 있지만 연구결과가 보여주는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활용한 통번역 교수법에 대한 관심과 연구 필요성은 분명 주목할 만하다. 해외 연구 및 교육 동향과 비교할 때 이러닝이나 블렌디드 러닝에 관한 국내 통번역 교육연구는 부진하다. 대표적인 국내 통번역 전문학술지인 『번역학 연구』와 『통역과 번역』 등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국내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교육에 관한 논문은 수십 편에 달하지만 온라인 교육이나 ICT활용 통번역 교수법에 관한 논문은 단 몇 편에 불과하다(김정우 2004; 오미형 2011; 박명수 2014; 이지은 외 2015 등). 여기에는 통번역 교육이 이론과 연구 중심이기 보다는 통역 및 번역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실기 중심이며 교수자 가운데 실무자 비중이 높은 점, 그리고 전통적인 면대면 교육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크게 작용하여 새로운 교수법 개발과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이지은 외 2015: 118).

ICT 기술을 활용한 이러닝과 블렌디드 러닝 통번역 교수법을 도입하는 주된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주로 학생 수의 증가, 제한된 면대면 수업 시간, 실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협력학습을 도입하기 위함이다(Jiménez-Crespo 2015; 이지은 외 2015). 블렌디드 러닝 방식은 역동적인 수업환경을 촉진함으로써 교수와 학습자 또는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연결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다양한 모바일 기기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스마트 러닝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고 친밀감을 높여 주며 교육 역량, 교육방법과 내용의 확장에도 기여하는 등 장점이 있다(문혜성 박경모 2013: 186; 이지은 허지운 2015: 7). ICT 활용 통번역교육 연구에 참여한 통번역 학습자들은 블렌디드 러닝이나 이러닝에 대해 수용도가 높고 학습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국내 석사과정 통역교육 연구인 이지은 외(2015: 133, 136)에서는 학습관리시스템(LMS) 활용에 대한 만족도 문항군의 학습자 응답 평균이 5점 기준 4.28, 학습자 체감 학습효과는 3.81로 높게 나타났다. 또

한 온·오프라인 통번역교육을 모두 경험한 학습자들의 온라인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3.9로 상당히 높았고 75%가 온라인 번역수업이 면대면 수업만큼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결과도 통번역 교육방식의 확대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Lee and Huh 준비중).

이러한 새로운 교수법 및 학습방식의 장점이 교육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교수자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학습 사례를 보면 활발한 교수자의 참여가 학습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나 참여자 간의 친밀감을 증진시켜 오프라인의 연장선인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한 것을 알 수 있다(강인에 외 2012: 289; 이지은 허지운 2015: 9). 다시 말해 새로운 학습 환경에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수·학습전략 수립, 구체적인 수업설계 및 준비와 직결되는 교수자의 역량과 역할이 필수적이다. ICT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학습자 선호를 파악하여 적절한 매체와 도구를 선택하고,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수업을 어떻게 조합할 것이며, 어떤 활동을 어떤 환경에서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학습자 참여를 어떻게 장려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교수법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강인에 외 2012: 289; 이지은 허지운 2015: 10).

ICT 기술과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살린 통번역 교육을 제공하는 해외 대학이 늘어나고 이에 관한 교수법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대내외적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번역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교수자의 관심과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통번역 교육에서도 교수자의 인식은 교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수업 진행이나 피드백 및 수업 자료의 공유 등 학습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교수자들의 ICT 활용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온라인 교육 및 블렌디드 러닝 교수법에 대한 이들의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관련 교수법 연구와 논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통번역 교수자들이 교육에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용도는 어떠한가?
- 2) 통번역 교수자들은 온라인 교육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연령, 전임 여부 등 개인적인 배경이 인식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가?
- 3) 통번역 교수자들은 블렌디드 러닝 교수법에 관심이 있는가?

3. 온라인 교육 및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교수자 인식 설문조사

3.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 소재 한 통번역 석사과정에서 가르치는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다. 설문조사는 2014년 12월 중순 10일간 온라인 설문조사(서베이몽키)로 진행되었다.³⁾ 연구대상 대학원의 전임 및 비전임 교원의 63.9%에 해당하는 53명이 설문에 응했으며, 이 중 불완전응답을 제외한 47명의 유효응답을 기초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본고에서 소개한다. 연구대상자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교수자들을 접촉하지 않고 학교 행정실을 통해 설문조사 취지와 해당 링크가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였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추가 공지를 포함하여 총 2회에 걸쳐 연구 참여 안내 이메일을 내보냈다.

설문지는 응답률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최소한의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가급적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하여 응답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설문지는 전공학과와 언어, 직위, 연령대를 포함한 개인정보에 관한 4개 문항을 포함하여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⁴⁾ 설문지 구성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첫 번째 섹션에서는 소속학과 등 개인정보에 대해 답하게 하였고, 두 번째 섹션에서는 사용 중인 ICT 기기와 ICT 기술 수준에 대한 자기 평가 문항 2개를 포함하였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온라인 교육 실태와 학습효과에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 여기에는 각자 수업에 사용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용도, 사용 또는 미사용 이유 등 5개 선택형 문항(5점 척도 6개 문항 포함)과 서술형 문항 1개가 포함된다. 마지막 섹션은 온라인 교육 학습효과에 대한 인식과 블렌디드 러닝 교수법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5점 척도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설문문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부록에 첨부하였다.

4) 연구대상 가운데 남성교수자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본 조사로는 성별에 의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설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별 문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3.2 연구결과

본고의 분석 대상이 된 연구 자료는 2014년 2학기 기준 서울 소재 대학교의 통번역석사과정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강사 47명의 응답이다. 아래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소속 학과별로는 번역학과 24명, 통역학과 23명이다. 전공 언어는 영어 20명, 중국어 11명, 일어 9명, 불어 7명이다. 이중 전임교원이 7명, 나머지 40명인 응답자 대부분은 초빙교수, 겸임교수, 강사 등 비전임교원이다.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30대부터 50대 이상까지며 40대와 30대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40대가 20명, 30대가 19명, 50대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8명이었다.

<표 1> 참가자 정보

전공학과		전공언어		전임/비전임		연령대	
번역	51%(24)	영어	43%(20)	전임	15%(7)	30대	40%(19)
		중어	23%(11)			40대	43%(20)
통역	49%(23)	일어	19%(9)	비전임	85%(40)	50대+	17%(8)
		불어	15%(7)			-	

3.2.1 사용하는 ICT 기기와 사용 숙달 정도

교수자들의 ICT 기기 활용 정도와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사용중인 ICT 기기를 모두 선택하게 하였다. 이하 표에서 ‘N’은 표본수를 가리킨다.

<표 2> 사용중인 ICT 기기

ICT 기기	응답률	N
노트북	91.40%	43
PC	74.47%	35
태블릿 PC	55.32%	26
스마트폰	97.87%	36

위 <표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교강사들이 보유하고 사용하는 ICT기기로

스마트폰이 가장 많았으며(97.9%) 두 번째로 노트북이 많았다(91.40%).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기기는 PC였으며(74.47%), 네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기기인 태블릿PC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보유하고 있었다(55.32%).

〈표 3〉 기술 자기 평가

숙달도	응답률	N
미숙	8.51%	4
약간미숙	14.89%	7
보통	44.68%	21
약간숙달	23.40%	11
숙달	8.51%	4

ICT 활용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수자들이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기기 사용의 능숙도가 ICT를 활용한 교육방법에 대한 교수자의 관심도와 관련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수자들의 ICT 관련 기술 숙달 정도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위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가장 많은 숫자인 44.68%가 ‘보통’이라고 답하였으며 23.4%가 ‘약간 숙달’을 14.89%가 ‘약간 미숙’을 선택하였다. ‘미숙’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10% 미만이었다.

3.2.2 온라인 교육 플랫폼 사용

〈표 4〉 온라인 교육 플랫폼

숙달도	응답률	N
본교 LMS	74.47%	35
포털서비스 카페	21.28%	10
페이스북	0.0%	0
구글커뮤니티	2.13%	1
사용하지 않음	23.40%	11

최근 1년간 통번역 수업에 사용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선택하게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구 참가자 소속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LMS인 ‘사이

버캠퍼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4.47%)(<표 4 참조>). 이는 학교에서 사용을 장려한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두 번째로 많았다(23.4%). 미사용자 11명 중 3명은 번역 교수자, 나머지 8명은 통역 교수자였다. 이 가운데 전임교원은 2명뿐이며 9명이 비전임교원들이었다. 이들 미사용자의 연령대는 3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골고루 분포하였고, 언어전공은 영어 교수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이버캠퍼스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은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와 같은 포털 서비스 카페였다. 구글커뮤니티를 포함한 기타 플랫폼을 사용하였다는 소수 응답자도 있었다.

<표 5>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 경험

용도	미사용	가끔 사용	자주 사용	매주 사용	평균
실습과제 제출용	11.11%	11.11%	11.11%	66.67%	3.33
교수자 피드백용	33.33%	36.11%	8.33%	22.22%	2.19
학습자간 피드백용	30.56%	22.22%	11.11%	36.11%	2.53
수업 관련자료 공유용	8.33%	27.78%	16.67%	47.22%	3.03
수업외 학습자료 공유용	30.56%	27.78%	16.67%	25.00%	2.36
저널 등 기타과제 제출용	33.33%	19.44%	13.89%	33.33%	2.47
수업관련 공지용	22.22%	25.00%	22.22%	30.56%	2.61

최근 1년간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사용한 응답자들(36명)은 활용도에 관해 실습과제 제출용, 교수자 피드백용, 학습자 피드백용, 수업 관련 자료 공유용, 수업 외 자료 공유용, 통번역실습 과제를 제외한 기타 과제 제출용, 수업진행 관련 공지용 등 여섯 가지 용도별 사용 빈도를 선택하였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를 1점에서부터 빈도별 점수 차이를 두어 '매주 사용한다'를 4점까지 놓고 가중평균을 도출하면 결과는 위 <표 5>와 같다. 4점 기준 가장 높은 평균값인 3.33이 나온 답은 '실습 과제 제출용'으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도 매주 실습 과제 제출용으로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24명(66.67%)으로 나타나 과제 제출용도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은 답은 '수업 관련 자료 공유용'으로 평균값이 3.03이고, 수업 관련 자료 공유 용도로 매주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17

명(47.22%)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수업 관련 공지용(2.61)과 학습자간 피드백용(2.53)을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다.

〈표 6〉 기타 수업 관련 온라인 보조 도구

기타 수업 보조 도구	응답률	N
카카오톡	25.53%	12
카카오톡그룹	4.26%	2
스카이프	2.13%	1
해당 없음	72.34%	34
기타	0.0%	0

위에서 답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외에 수업과 관련된 보조 도구를 활용하는지 알기 위해 카카오톡 등 예를 제시하고 선택하게 하였는데 다른 보조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교수가 72.34%(34명)나 되었고,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응답자가 25.53%(12명)로 가장 많았다 (<표 6> 참조).

〈표 7〉 온라인 교육 도구 활용 이유

활용 이유	응답률	N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에 도움	36.11%	13
수업 자료 및 강의 정보 공유 유용	88.89%	32
접근 편의	75.00%	27
최신 ICT 활용 트렌드 접목 가능	8.33%	3
학교측의 장려	33.33%	12
기타	2.78%	1

온라인 교육 도구를 활용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답을 ‘기타’를 포함하여 6가지 중에서 모두 선택할 수 있게 하였는데 위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업 자료 및 강의 정보 공유에 유용’하여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32명으로 가장 많았다(88.9%). ‘접근 편의성’을 꼽은 응답자가 두 번째로 많은 27명이었다(75.00%).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13명이었다(36.11%). ‘학교측의 장려’도 33.33%의 응답률을 기록한 것을 볼 때

교육방식 도입과 활용에서 교육기관의 역할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온라인 교육 도구 미활용 이유

미활용 이유	응답률	N
활용 교수법 모름	45.45%	5
필요성 못 느낌	81.82%	9
의무 사항 아님	9.09%	1
ICT 사용 불편	27.27%	3
추가적 시간과 노력 필요	18.18%	2
기타	9.09%	1

한편 온라인 교육 도구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해당하는 답을 모두 선택하게 하였는데 전체 결과는 위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다. 11명의 응답자 중 9명(81.82%)이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라고 답하였으며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한 답이 ‘활용한 교육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45.45%). 그 외 ‘사용이 불편’하거나 ‘시간과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불편감을 꼽았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교수자도 활용방법과 교육효과에 대해 이해한다면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미사용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활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답은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3.2.3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

교수자들에게 온라인 교육 도구 활용의 교육 효과에 대한 7개의 문항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답하도록 하였다.

〈표 9〉 온라인 학습 도구 활용 효과에 대한 의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학습 동기 및 흥미 유발	0.00%	19.15%	53.19%	21.28%	6.38%	3.15
통번역실습에 도움	0.00%	14.89%	55.32%	23.40%	6.38%	3.21
문제해결 위한 성찰 가능	0.00%	36.17%	38.30%	21.28%	4.26%	2.94
적극적인 상호의견 교환	0.00%	8.51%	40.43%	44.68%	6.38%	3.49
정확한 의견 전달	0.00%	17.02%	55.32%	23.40%	4.26%	3.15
학습참여 장려	0.00%	12.77%	46.81%	36.17%	4.26%	3.32
학습자 상호 협력증진	0.00%	8.51%	40.43%	42.55%	6.38%	3.43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장 평균값이 높게 나온 항목은 ‘적극적인 상호의견 교환’이다(3.49). 교실수업에서 시간 제약과 교수자의 존재가 비교적 약한 온라인 상에서 활발한 상호의견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소한 차이지만 두 번째로 높은 값을 보인 답은 ‘학습자 상호 협력증진’(3.42)이며 그 다음으로 ‘학습참여 장려’(3.32), ‘통번역실습에 도움이 된다’(3.21)는 의견이 뒤따랐다. ‘학습동기 및 흥미 유발’과 ‘정확한 의견 전달’은 3.15 동점을 기록하였다. ‘문제해결을 위한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는 답은 가장 응답률이 낮은 2.94를 기록하였다.

앞서 확인한 응답자의 인적사항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는지 보기 위해 전공별, 전임 여부, 연령대별, ICT 기술 숙련도별로 답변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중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간의 온라인 교육 효과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고, 다른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결과를 보이지 않다. 간단히 말하자면 대체로 전임교원이 온라인 교육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표 9〉에 포함된 항목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성찰 유발 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 전임 여부와 항목 답변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온라인 교육 도구 활용의 ‘동기 및 흥미 유발’ 효과에 대해 Fisher의 정확검정을 해보면 전임 여부와 동기 및 흥미 유발에 대한 인식 사이에 연관성이 확인된다($p=0.0049$). ‘실습 및 연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또한 전임 여부가 응답과 관련이 있다($p=0.0016$). ‘정확한 상호의견 전달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p=0.0227$), ‘학습 참여 장려’ 효과에 있어서도 전임과 비전임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p=0.0327$). 다만 ‘적극적 상호 의견 교환을 용이하게 한다’는 응답과($p=0.0581$) ‘상호간 협력 증진’($p=0.093$) 두 가지 항목에 있어서는 유의수준을 10%까지 넓히게 될 경우에 전임 여부와 답변 간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전임교원 표본수가 7에 불과하여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10〉 연령과 온라인 학습의 적극적 상호 의견 교환에 대한 답변 사이의 연관성

연령과 온라인 학습의 적극적 상호 의견 교환 답변 간의 연관성					
연령	적극적 상호 의견 교환				
	2	3	4	5	합계
30대	2	3	4	5	19
	1.617	7.6809	8.4894	1.2128	
40대	0	12	8	0	20
	1.7021	8.0851	8.9362	1.2766	
50대	2	0	4	2	8
	0.6809	3.234	3.5745	0.5106	
합계	4	19	21	3	47

연령별 응답 차이를 보기 위한 Fisher의 정확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이 0.0075로 나타나 ‘연령’과 ‘적극적 상호 의견 교환’ 문항 선택 사이에 연관

5) 카이제곱검정 결과 유의확률(p-value)이 항목별로 모두 0.005 미만이나 기대빈도가 적어 피셔검정을 수행한 것이다.

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40대보다는 30대가, 그리고 5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ICT 기술이 ‘적극적 상호 의견 교환’을 돕는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짙어진다(<표 10> 참조).⁶⁾ 하지만 역시 표본수가 적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

교수자들에게 면대면 수업을 온라인 수업이 어느 정도 대체 가능한지 의견을 물었는데 응답 평균값이 2.13에 그쳐 설문조사 참가자들이 온라인 교육의 효과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표 11> 온라인 수업의 면대면 수업 대비 교육효과에 대한 의견

대체 가능	응답률	N
절대 불가	12.77%	6
제한적 가능	72.34%	34
보통	4.26%	2
어느 정도 가능	10.64%	5
매우 가능	0.0%	0

위 <표 1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온라인 수업이 어느 정도 면대면 수업을 대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72.34%가 ‘제한적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답하였고, ‘절대 불가하다’는 부정적인 응답자가 12.77%였다. ‘매우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온라인 수업의 효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신뢰도가 실제 활용 경험에 근거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 또는 태도의 표명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앞서 살펴본 응답자들의 ICT 활용 수준을 토대로 짐작컨대 경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소극적 수용태도에 기인한 응답결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교수자의 기대수준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 또는

6) 카이제곱검정 결과 유의확률(p-value)이 0.0175로 유의수준 5%에서 ‘연령’과 ‘적극적 상호 의견 교환’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분할표의 약 67%의 셀이 5보다 적은 기대빈도를 가지므로 카이제곱검정의 결과를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Fisher의 정확검정을 보면 유의확률(p-value)이 0.0075로 ‘연령’과 ‘적극적 상호 의견 교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

혼합형 교육의 장점에 대한 교수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연령과 전공, 전임 여부 등 변수에 따라 면대면 대비 온라인 교육의 대체 효과에 대한 응답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표 12〉 블렌디드 러닝 교수법에 대한 관심

관심도	응답률	N
전혀 없음	2.13%	1
없음	19.25%	9
보통	38.30%	18
있음	34.04%	16
매우 있음	6.38%	3

마지막으로 교수자들의 블렌디드 러닝 교수법에 대한 관심도에 있어서는 ‘보통’이라고 답한 교수자가 가장 많았다(38.30%). ‘관심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4.04%로 두 번째로 많은 답이었다. 세 번째로 응답률이 높은 답은 ‘관심이 없다’로 이를 선택한 응답자도 19.25%나 되었다. 관심이 전혀 없다는 응답자는 2.13% 있었다. 전반적으로 교수법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는 온라인 수업의 면대면 수업 대체 효과에 대한 인식에 비해 긍정적이었다.

앞서 LMS 미사용자라고 답한 11명의 관심도를 살펴보자면, ‘보통’을 선택한 응답자가 5명, ‘관심 있다’를 답한 교수자는 2명뿐으로 이들의 블렌디드 러닝 교수법에 대한 관심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미사용자의 연령과 전공, 전임 여부 등 변수가 교육효과에 대한 의견과 관련 있는지 통계분석을 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4. 결론

국내외적으로 온라인 교육과 블렌디드 러닝 교수법은 주요한 연구주제로 부상하였지만 아직까지 국내 통번역 교육현장과 연구에서는 그렇지 못한 편이다. 앞으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적극 대응하고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교수법 연구가 필요하며, 새로운 교수법 개발과 도입에는 교수자들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교수법 개발과 실행의 주체라 할 수 있는 통번역 교수자들의 인식이 IC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수법 연구개발 및 도입에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 한 대학의 통번역 석사과정 교수자들의 온라인 교육 활용 실태와 온라인 교육 및 관련 교수법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자면 조사 대상 교수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ICT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LMS)을 활용하고 있어 활용도가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로 과제제출용이나 공지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수자들의 의견과 관심도에 있어서는 면대면 대비 온라인 교육의 효과에 대해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으며 응답자의 25% 정도가 온라인 교육 및 교수법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가자 중 전임교육과 비전임교원 간의 온라인 교육 효과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을 뿐 다른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결과를 보이지 않다. 본 사례연구는 교수자의 성별이나 학부전공, ICT 기술숙련도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이 포함되지 않아 추가적 개인적 변수의 영향을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전임교원이 온라인 교육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지만 매우 작은 표본을 기초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교수자들의 제한된 ICT 기술 활용 수준과 온라인 교육의 효과에 대한 보수적 의견, 그리고 교수법에 대한 관심 부족은 이에 대한 이해와 정보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에 드러난 학습자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대조되는 본 연구결과로 IC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교수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현장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통번역 교수법 연구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앞으로 교수법 연구를 통해 비교적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덜 받으면서 개인 맞춤형 교육 및 협력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및 블렌디드 러닝 방식의 장점에 대한 홍보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보는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며 사례공유가 교수개발 노력의 출발점이 되리라 본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자 개인의 노력과 시간 투자에 기대기보다 대학 차원에서 교수법 연구와 적용을 위한 장려책을 마련하고 교수법 연구모임을 활성화하여 교수자들간의 정보 공유를 지지하고 새로운 시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더욱 효과적인 통번

역 온라인 교육과 블렌디드 러닝 교수법 연구가 활발하게 이어져서 실무가인 교수자들과도 널리 공유하는 한편 실무 현장의 기술을 포함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교육 현장에 반영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통번역 실무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통번역 교수법이 발전될 수 있기 바란다.

참고문헌

- 김정우 (2004) 「대학 교양 영역으로서의 번역 과목의 의의」, 『번역학연구』 5(1): 25-53.
- 김태완, 이규민, 최명숙, 엄우용, 최성열 (2006) 「대학에서 인문학 수업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과 우수 인문학 강의 사례 분석」, 『교육과학연구』 37(1): 101-28.
- 강인애, 주현재 (2009) 「‘학습자 중심 교육’의 의미에 대한 재조명: 현직교수들의 이해와 실천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9(2): 1-34.
- 강인애, 임병노, 박정영 (2012) 「스마트 러닝의 개념화와 교수학습전략 탐색: 대학에서의 활용을 중심으로」, 『교육방법연구』 24(2): 283-303.
- 권성연, 신소영, 김지심 (2011) 「대학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학습자중심교육의 중요도와 실행도 분석: 교수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1(1): 51-78.
- 박명수 (2014) 「번역 교육을 위한 코퍼스기반 용어추출 방법」, 『번역학연구』 15(2): 111-34.
- 박성익, 이상은, 송지은 (2007) 「블렌디드 러닝에서 효과적 온/오프라인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 강좌를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5(1): 17-45.
- 손충기 (2003) 「대학교수의 교수개발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검증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0(2): 121-50.
- 송경오, 허은정 (2011) 「교사의 학습기회가 교사의 교직신념 및 교수법 활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8(4): 89-116.
- 신종호 (2014) 「학습자 중심 교수법에 대한 A대학 교수들의 관심도 분석: 관심 기반수용모형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10(1): 109-32.

- 오미형 (2011) 「문장구역 원격강의: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3): 111-39.
- 유정아 (2009) 「대학교원을 위한 교수법 증진 프로그램 적용 사례연구: C대학을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26(1): 343-67.
- 이지은, 허지운 (2015) 「통역 교육의 보조도구로서의 SNS 활용 사례 연구—카카오그룹을 활용한 스마트 러닝」, 『통번역 교육연구』 13(1): 147-75.
- 이지은, 장애리, 최문선, 허지운 (2015)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통역교수법 사례연구」, 『번역학연구』 16(1): 117-44.
- 이현주 (2012) 「블렌디드 러닝을 통한 대학생 영어학습에서의 상호작용과 자기 주도적 학습의 효과」,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8(1): 1-24.
- Blasco Mayor, María J., and Amparo Jiménez Ivars (2007) 'E-Learning for Interpreting', *Babel* 53: 292-302.
- Braun, Sabine (2007) 'Interpreting in Small-group Bilingual Videoconferences: Challenges and Adaptation Processes', *Interpreting* 9(1): 21-46.
- Braun, Sabine and Catherine Slater (2014) 'Populating a 3D Virtual Learning Environment for Interpreting Students with Bilingual Dialogues to Support Situated Learning in an Institutional Context',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8(3): 469-85.
- Hall, Gene E. and Shirley M. Hord (2006) *Implementing Change: Patterns, Principles, Potholes* (2nd ed).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Jiménez-Crespo, Miguel A. (2015) 'The Internet in Translation Education: Two Decades Later',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10(1): 33-57.
- Kenny, Dorothy, and Stephen Doherty (2014)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in the Translation ... Obstacles and Empowering Translators',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8(2): 276-94.
- Kenny, Mary Ann. (2008) 'Discussion, Cooperation, Collaboration',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2(2): 139-64.
- Lee, Jieun, and Jiun Huh (준비중) 'Why Not Go Online?: A Case Study of Blended Mode Business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Certificate Program'
- Moser-Mercer, Barbara (2005) 'Remote Interpreting: Issues of Multi-sensory

- Integration into Multilingual Task', *Meta* 50(2): 727-38.
- Munday, Jeremy (2012)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O'Hagan, Minako (2012) 'The Impact of New Technologies on Translation Studies: A Technological Turn?' in Carmen Millán Varela and Francesca Bartrin (eds) *Routledge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503-18.
- Pedersen, Susan, and Min Liu (2003) 'Teachers' Beliefs about Issues in the Implementation of a Student-Centered Learning Environment',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51(2): 57-76.
- Rodríguez-Inés, Patricia (2010) 'Electronic Corpora and Oth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ools: An Integrated Approach to Translation Teaching',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4(2): 251-282.
- Rogers, Everett (2003) *Diffusion of Innovations* (5th ed). New York: The Free Press.
- Şahin, Mehmet (2013) 'Virtual Worlds in Interpreter Training',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7(1): 91-106
- Sandrelli, Annalisa, and Jesús de Manuel Jerez (2007) 'The Impac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on Interpreter Training: State-of-the-Art and Future Prospects',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2): 269-303.
- Secară, Alina, Pascaline Merten, and Yamile Ramírez (2009) 'What's in Your Blend?: Creating Resources for Translator Training',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3(2): 275-294.
- Talaván, Noa and Pilar Rodríguez-Arancón (2014) 'The Use of Reverse Subtitling as an Online Collaborative Language Learning Tool',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8(1): 84-101.
- Tymczynska, Maria (2009) 'Integrating In-class and Online Learning Activities in a Healthcare Interpreting Course Using Moodle', *JOSP: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12. http://www.jostrans.org/issue12/art_tymczynska.pdf

부록

<설문 문항>

1. 선생님의 소속 전공학과는 무엇입니까? (본대학원에서 주로 가르치시는 과목 기준)
 번역학과 통역학과
2. 선생님의 언어 전공은 무엇입니까?
 영어 중어 일어 불어
3. 선생님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하십시오.
 교수 초빙/겸임/강사
4. 선생님의 연령대를 선택하십시오.
 30대 40대 50대 이상
5. 선생님이 보유, 사용하시는 ICT기기를 모두 선택하십시오.
 PC 노트북 아이패드 등 태블릿 PC 스마트폰
6. 선생님의 ICT관련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미숙 약간 미숙 보통 약간 숙달 숙달
7. 선생님께서 최근 1년간 전공 수업에 사용하신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모두 선택하십시오.
 사이버캠퍼스
 네이버/다음 등 포털서비스의 카페
 페이스북
 구글 커뮤니티

- 해당없음(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한 적이 없다)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온라인교육 도구 활용

8. 선생님께서는 위에서 답하신 온라인교육 플랫폼을 아래 용도로 활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해주시시오.

	전혀 사용안함	가끔 사용	자주 사용	매주 사용
실습과제 제출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교수자 피드백 제공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습자간 피드백 공유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수업 관련 자료 (문서, 동영상, 녹음, 화일 등)공유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수업 외 학습 자료(문서, 동영상, 녹음, 화일 등)공유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학습자 등 기타 저널 과제 제출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수업진행 관련 공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9. 온라인 교육 도구를 활용하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에 도움이 된다
- 수업 자료 및 강의 진행 정도 공유에 유용하다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접근 편의성이 있다
- 최근의 ICT 활용 트렌드를 수업에 접목할 수 있다
- 학교측에서 사이버캠퍼스 등 ICT 활용을 독려하고 있다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0. 온라인 교육 도구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 최신 ICT 트렌드를 활용한 교육방법을 잘 모른다
- 기존의 수업 방식으로 충분하여 필요성을 못 느낀다
- 온라인 교육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 컴퓨터 등 ICT 기기를 사용하기 불편하다
-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기타 툴

11. 그 외에 수업 관련 보조 툴로 사용하신 것을 모두 선택하십시오.

- 카카오톡
- 카카오톡그룹
- 라인
- 텔레그램
- 구글 행아웃
- 왓츠앱
- 스카이프
- 해당없음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2. 11번에 답변하신 툴을 활용하는 용도를 간단히 적어주시시오.

온라인 교육 효과

13. 온라인 교육 도구를 활용하였을 때 학습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 우 그렇다
온라인 교육은 학습 동기 및 흥미 유 발에 도움이 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온라인 교육은 통번역 실습/연습에 도움이 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온라인 교육을 통해 학습 문제 해결 을 위한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적극적인 상호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온라인 교육을 통한 상호의사 소통 시 서로의 의견이 정확히 전달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교수자가 학생들 의 학습 참여를 더욱 장려할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학습자 상호간 협력이 증진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4. 교육 효과면에서 먼대면 수업을 온라인 수업이 대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절대 불가하다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보통 어느 정도 가능하다
 매우 가능하다

기타

15.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혼합한 블렌디드 러닝 교수법에 대해 관심
있으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Abstract]

A Survey on T&I Trainers' Perspectives on Online & Blended Teaching and Learning

Lee, Jieun
(Ewha Womans Universit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has transformed the professional practice of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and influenced both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education and research over the years. It has led to the introduction of online teaching and learning and blended learning modes in overseas T&I training programs, but few attempts have been made in local T&I training contexts. Given that teachers' perceptions and beliefs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adoption of new teaching practice, T&I trainers' views on ICT-based training, namely online and blended teaching and learning, deserves scholarly attention. This case study, which is based on a questionnaire-based survey, investigated 47 T&I trainers' current teaching practice in terms of ICT applications, their perspectives on online teaching and learning and its efficacy, and their interest in a blended approach.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majority of them use online platforms in connection with their teaching but to a somewhat limited extent, and that nearly a quarter have yet to use them. When it comes to the perceived efficacy of online training versus face-to-face training, they were more or less skeptical about it. Full time academics turned out to be more positive about it than non-full time academics. Other factors such as their specialty, working language, age, and ICT proficiency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 with their views on the efficacy of online training. Those who do not use online platforms for teaching purposes tended to be less

interested in blended teaching and learning. The results suggest that T&I trainers need more information through training opportuniti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advantages of new teaching methods and how to apply new technologies to their teaching practice thus reaping the benefit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The findings point to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 on effective T&I pedagogy and training methods incorporating both the advantages of face-to-face and online training.

▶ Key Words: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training, pedagogy, online teaching and learning, blended learning, teachers' perception and attitude

이지은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통역학과 부교수

jieun.lee@ewha.ac.kr

관심분야: 사법통역, 커뮤니티 통역, 통번역 교육, 담화분석

논문투고일: 2016년 1월 12일

심사완료일: 2016년 2월 29일

게재확정일: 2016년 3월 6일